

NHeri 경영정보 제25호 2008. 6. 16.

작성 : 수석연구원 김영섭(triskim@nonghyup.com)

이 자료는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08-2017」 내용 중 곡물, 육류, 바이오 연료 부분을 발췌 번역한 것입니다.

OECD-FAO 농업전망(2008-2017)

목 차

< 요약 >

| | |
|------------------------|-----|
| I. 곡물 | /1 |
| II. 육류 | /6 |
| III. 바이오 연료 | /10 |
| < 참고 > 연구소별 곡물가격 전망 비교 | |

농협경제연구소

< 요약 >

□ 곡물과 육류의 가격은 단기적으로는 강세 유지, 중장기적으로는 02/03~06/07년 보다는 높은 수준에서 하향 안정

- 곡물은 2008년 생산이 늘어나겠지만 수요도 같이 증가하면서 향후 1~2년간 강세 유지
- 육류는 그 동안 가격에 반영되지 않았던 사료가격 상승분이 반영되면서 향후 3~4년간 가격 상승
- 중장기적으로 농축산물 수급 균형에도 불구하고 낮은 재고율과 높은 생산비로 과거보다 가격이 높을 전망

□ 밀의 2017년 생산·소비량은 각각 689백만톤으로 10년간 30~53백만톤 증가하고, 가격은 02/03~06/07 대비 38% 상승

- 소비 증가 : 개도국의 식용소비, OECD 국가의 사료소비, 에탄올 생산 증가 등
- 생산 증가 : EU의 생산조정 의무비율 축소, 기상여건 호조 등
- 가격 : (02/03~06/07) 168달러/톤 → (17/18) 231

□ 옥수수 등 잡곡의 2017년 소비량은 1,212백만톤으로 10년간 129백만톤 증가하고, 가격은 02/03~06/07 대비 46% 상승

- 소비 증가 : 사료소비와 미국의 에탄올 생산 증가 등

- 생산 증가 : 수익성 증가로 경작지가 확대되고 잡곡으로 작목전환
 - 가격 : (02/03~06/07) 113달러/톤 → (17/18) 165
- 쌀의 2017년 생산·소비량은 각각 475백만톤으로 10년간 40백만톤 가량 증가하고, 가격은 02/03~06/07 대비 28% 상승
- 소비 증가 :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에서 식용소비 증가
 - 생산 증가 : 국가별 자급정책 추진으로 단수와 면적 증가
 - 가격 : (02/03~06/07) 262달러/톤 → (17/18) 335
- 육류의 경우 사료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생산·소비량은 연간 2%씩 증가하고, 가격은 최대 23% 상승
- 선진국에서는 저지방 선호와 조리 편의성, 개도국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사료효율성으로 가금류 소비가 크게 증가
 - 쇠고기의 경우 미국 등은 바이오 연료 추출 후 부산물 활용, 브라질 등은 넓은 초지를 활용하여 경쟁력 강화
 - 02/03~06/07년 대비 2017년 가격상승률 : 돼지고기 16%, 쇠고기 13%, 가금육 23%로 전망됨
- 향후 농축산물 가격은 낮은 재고율, 바이오 연료 생산, 기상 변화, 투기자본의 유입 등으로 변동성이 더욱 심해질 전망

I. 곡물

1. 세계 시장 추세와 단기 전망

가. 수급 동향

- 생산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소비량 증가로 수급 불균형 지속
 - 07/08년 생산량은 4억 32백만톤이나 소비량은 4억 40백만톤으로 8백만톤 정도 소비량이 생산량을 초과
- 수요초과로 07/08년 곡물 재고량은 더욱 감소
 - 재고량 : (02/03~07/08년) 93백만톤 → 79백만톤
- 08/09년 예상 생산량 증가는 주로 잡곡과 쌀 생산 증가에 기인
 - 호주, 캐나다, EU, 모로코, 우크라이나 등의 기상여건 개선
 - EU는 10% 의무 생산조정 해제 등 정책 변화
 - 개도국은 정부 매입가격 인상, 투입재 보조 확대

나. 가격 동향

- 세계 곡물가격은 재고 감소로 상승 추세에 있음
 - 옥수수 가격 상승에서 시장되어 밀, 쌀 가격 상승으로 전파
 - 작목간 대체 등 농업 내적 요인, 에너지 가격불안, 금융시장 불확실성으로 과거보다 훨씬 높은 변동성을 동반
- 2007년에는 밀 가격이 전년대비 30% 이상 상승
 - 가격 상승 요인으로는 낮은 재고와 2006년 생산 감소
 - 아르헨티나 등 수출국의 국내 물가상승 우려로 수출 규제
 - 미국달러 가치 하락으로 미국산 밀 수요 증가

- 옥수수 가격은 2006년 중반부터 2007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며 향후에도 에탄올 생산 증가로 상승세 유지
 - 미국에서 에탄올 생산을 위한 옥수수 수요 증가, 수출규제와 달러화 약세 등으로 상승세 지속
- 08/09년 생산 증가 예상에도 불구하고 낮은 재고로 세계 곡물 가격은 적어도 내년까지는 높은 수준을 유지
 - 향후 단수 증가와 식부면적 증가로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연료용 곡물 수요가 안정되면서 가격도 안정될 전망
 - 2008~2017년 가격은 2007년보다는 가격이 낮아지지만 1998~2007년 가격보다는 실질기준으로도 높을 전망

2. 밀

- 2017/18년 세계 밀 소비량은 689백만톤으로 2008/09년 대비 8.3% 증가
 - 밀 소비량 : (08/09) 636백만톤 → (17/18) 689백만톤
 - 캐나다와 EU27 등 에탄올 생산용 밀 소비가 늘어나고 개도국에서 식용소비, OECD 국가에서 사료 소비 증가
 - 식용 소비의 경우는 인구증가율이 둔화되고 동물성 식생활로 식품소비 패턴이 변화하면서 증가 추세가 둔화
- 2017/18년 세계 밀 생산량은 689백만톤으로 2008/09년 대비 4.6% 증가 전망
 - 밀 생산량 : (08/09) 659백만톤 → (17/18) 689백만톤
 - 2008년에는 EU의 10% 생산조정 의무가 중지되고 호주의 가뭄 피해 해소 등으로 밀 생산량은 크게 늘어날 전망
 - 향후 밀 재배면적은 옥수수나 유지종자 등 타작목으로 전환되면서 다소 감소

- 2017년 밀 교역량은 126백만톤으로 2008년 대비 15.6% 증가
 - 밀 교역량 : (2008) 109백만톤 → (2017) 126백만톤
 - OECD 이외 국가의 수입량은 2017년 10억톤으로 전체 교역량의 80%를 차지하여 현재의 78%보다 확대될 전망
 - 주요 밀 수출국 가운데 EU의 밀 수출량은 다소 감소

- 2017/18년 밀 재고량은 176백만톤으로 2008/09년 대비 1.7% 감소하고 가격은 2002년 이후 40% 상승할 것으로 전망
 - '08년 재고량은 EU와 호주 등의 생산 증가로 어느 정도 회복할 것이지만 소비량 대비 25% 수준에 머무를 전망
 - 밀 가격은 고유가에 따른 곡물 생산 비용(농기계 유류대, 비료대, 농약대) 상승 등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
 - 밀 가격: (02/03~06/07)168\$/톤→ (07/08)319→ (17/18)231

3. 옥수수 등 잡곡

- 2017/18년 잡곡 소비량은 1,212백만톤으로 2008/09년 대비 11.9% 증가 전망
 - 잡곡 소비량 : (2008/09) 1,083백만톤 → (2017/18) 1,212
 - 연평균 증가율은 1%로 이전 10년간 증가율의 절반 수준
 - 소비 증가는 육류 생산을 위한 사료 소비와 미국에서의 에탄올 생산용 옥수수 수요 증가에 기인

- 2017/18년 잡곡 생산량은 1,217백만톤으로 2008/09년 대비 13.2% 증가 전망
 - 잡곡 생산량 : (2008/09) 1,075백만톤 → (2017/18) 1,217
 - 수요 증가와 수익성 개선으로 생산이 증가
 - 국가별로 보면 미국 (옥수수, 사탕수수), 중국 (보리, 옥수수), 나이지리아 (옥수수, 기장), 터키 (보리) 순으로 많이 생산

- 생산 증가는 재배면적 증가보다는 주로 단수 증가에 의해 이루어질 것이며 옥수수의 경우 재배면적이 늘어날 전망
- 2017년 잡곡 교역량은 127백만톤으로 2008년 대비 13.4% 증가
 - 잡곡 교역량 : (2008) 112백만톤 → (2017) 127백만톤
 - EU의 옥수수와 사탕수수 수입은 매년 1.6%씩 증가
 - 호주는 보리, 아르헨티나는 옥수수, 우크라이나는 옥수수와 보리 수출이 늘어날 전망
 - 중국의 수출은 점차 줄어들어 2017년에는 수입국으로 전환
- 2017/18년 잡곡 재고량은 222백만톤으로 2008/09년 대비 13.3% 증가하고 2002년 이후 가격은 46% 상승할 전망
 - 2008년 생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크게 증가하여 재고는 여전히 과거보다 크게 낮은 수준
 - 잡곡 재고율 : (07/08) 14.6% → (09/10) 12.3 → (17/18) 15.8
 - 낮은 재고로 잡곡 가격은 향후 3~4년간 높게 유지되면서 하락하나 17/18년 가격은 02/03~06/07년 대비 46% 상승
 - 잡곡 가격 : (07/08) 181\$/톤 → (10/11) 189 → (17/18) 165

4. 쌀

- 2017/18년 쌀 소비량은 475백만톤으로 2008/09년 대비 8.4% 증가 전망
 - 쌀은 다른 곡물과 달리 사료나 바이오 연료로 사용되지 않으며,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지역에서 중요한 식량 자원임
 - 1인당 소비량은 아시아에서는 소득증가와 식생활 다양화로 감소하지만 아프리카에서는 증가
 - 2017년 소비량을 지역별로 보면 아시아 404백만톤, 아프리카 30백만톤, 중남미 지역 22백만톤으로 전망

- 2017/18년 쌀 생산량은 475백만톤으로 2008/09년 대비 8.2% 증가 전망
 - 쌀 생산량 : (2008/09) 439백만톤 → (2017/18) 475백만톤
 - 기술발전, 수리시설 정비, 품종개량 등으로 단수 증가
 - 아시아, 중남미는 가격 상승에 따라 벼 재배면적 확대
 - 최근 식량위기 경험 후 많은 국가들이 쌀 자급 정책 추진

- 2017년 쌀 교역량은 38백만톤으로 2008년 대비 23.5% 증가
 - 쌀 교역량 : (2008) 31백만톤 → (2017) 38백만톤
 - 코디디브아르, 가나, 나이지리아 등 아프리카에서 전체 수입량의 32%를 수입할 전망
 - 태국은 세계 수출량의 1/3인 12백만톤 이상을 수출하는 등 쌀 수출국으로서의 위치를 굳건히 할 것임

- 2017/18년 쌀 재고량은 81백만톤으로 2008/09년 보다 1.9% 높아지고 가격은 2002년 이후 27.5% 상승할 전망
 - 쌀 재고는 1999년 39%에서 2007년 18%까지 낮아졌으며 중국과 인도 등 주요 생산국의 재고 감소로 가격 불안 심화
 - 특히 세계 1위의 쌀 생산 국가인 중국에서의 소비 증가로 재고가 더욱 줄어들 것임
 - 쌀 가격은 2008년 391달러까지 상승하다가 이후 점차 떨어져 2017년에는 335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
 - 1990년대와 2000년대 보다 낮은 재고율로 인해 가격 변동성이 훨씬 커질 것임

II. 육류

1. 세계 시장 추세와 단기 전망

- 2007년 사료 가격은 크게 오른 반면, 육류 가격은 낮아 육류 생산업자 채산성이 크게 악화
 - 곡물과 낙농제품의 비정상적인 가격 상승과는 달리 대부분의 육류와 가축의 가격이 오르지 않음
 - 이는 비용 증가가 가축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데 시간이 걸리며, 일부 가축은 도축 증가 및 가격하락 주기에 있기 때문

- 향후 육류 생산업자의 수익성은 건고형옥수수주정박(DDGS, Dried Distillers' Grains with Solubles)¹⁾과 곡물 이외의 사료 활용여부에 좌우될 것임
 - DDGS 활용으로 소 사육시 곡물 및 유지종자 가격 급등의 영향 상쇄. 그러나 돼지, 가금류의 사료가격 급등 영향은 여전
 - 사료가격 상승하면서 목초로 소를 기르는 국가들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며, 이미 브라질은 단기간에 세계 1위의 육류 수출국으로 부상하여 2007년 세계 육류 수출량의 30% 점유

- 육류 소비는 신흥경제국과 개도국의 경제 성장으로 크게 증가
 - 소득 증가에 따른 동물성 단백질 소비 증가로 개도국에서 적은 비용으로 생산이 가능한 가금류, 계란의 소비 증가
 - 육류 1kg 생산을 위해 필요한 옥수수 양 : 쇠고기 6.2kg, 돼지고기 8.4kg, 가금류 3.4kg, 계란 3.8kg
 - 한편 선진국은 저칼로리 육류와 조리된 식품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가금류 소비 증가

1) 옥수수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에탄올 생산에 사용되는 옥수수를 가공할 때 함께 생산되는 부산물인 건고형옥수수주정박(DDGS, Dried Distillers' Grains with Solubles)에 대한 관심이 크게 대두되고 있음. 옥수수주정박은 고단백, 고지방, 그리고 식이섬유를 함유하고 있어 축산사료로 사용.

2. 가격 전망

- 개도국과 신흥경제국에서의 사료 가격 상승과 육류 수요 증가로 육류 가격은 더욱 올라갈 전망
 - 돼지 등 반추하지 않는 축산물 가격은 DDGS 활용이 어렵고 사료 및 유류가격 상승 등 투입재 비용 증가로 가격 상승

- 2017년 OECD 국가들의 돼지고기 가격은 159달러/100kg으로 2002~06년 평균 대비 16.1% 상승
 - 미국 돼지고기 가격 : (02~06) 137달러/100kg → (11) 169 → (17) 159
 - 향후 3~4년간은 공급 증가로 낮게 유지되다 사료비 증가가 반영되면서 상승하고, 그 이후 다시 공급증가로 다소 하락

- 2017년 OECD 국가들의 쇠고기 가격은 329달러/100kg으로 2002~06년 평균 대비 13.1% 상승
 - 미국 쇠고기 가격 : (02~06) 291달러/100kg → (17) 329
 - DDGS 활용으로 사료가격 상승 영향을 상쇄

- 2017년 OECD 국가들의 가금육 가격은 177달러/100kg으로 2002~06년 평균 대비 22.9% 상승
 - 미국 가금육 가격 : (02~06) 144달러/100kg → (17) 177
 - 가금류는 생산주기가 짧아 투입 비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

3. 생산 전망

- 육류 생산량은 사료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이전 10년보다는 증가율이 둔화되겠지만 연간 2%씩 증가 전망

- 주로 아프리카, 남미 등 OECD 이외 국가에서 생산 증가
 - 2005~07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OECD 국가는 1%, 아프리카, 중남미, 아시아 지역은 20%~30%
 - 이에 따라 개도국의 생산량 비중은 63%로 확대. 러시아는 50%,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30%, 중국은 30% 증가 전망
- 축종별로 보면 돼지고기와 가금류 생산은 연간 2%씩 증가하고 쇠고기와 양고기는 1.6%씩 증가
 - 이전 10년에 비해 비 반추동물의 증가율은 둔화되고 반추동물의 증가율은 확대

4. 소비 전망

- 육류 소비는 높은 육류 가격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과 식생활의 변화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증가
 - 1인당 육류 소비량 : OECD (08) 66.8kg → (17) 68.1kg
OECD이외 (08) 24.7kg → (17) 28.0kg
 - 선진국의 경우 가금류 소비가 크게 증가하는 반면 쇠고기와 돼지고기는 증가하는 크지 않을 전망
 - 개도국의 경우 아프리카에서는 가금류와 쇠고기가 크게 증가하고, 중국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돼지고기 소비 증가
- 계란 소비는 개도국에서 크게 증가. 이는 적은 비용으로 동물 단백질 수요를 충족할 수 있기 때문

5. 교역 전망

- 세계 육류 교역량은 안정적으로 증가. 2005~07년 평균 22백만톤에서 2017년엔 29백만톤으로 증가 전망

- 브라질과 미국의 수출은 증가하고 EU와 캐나다의 수출은 감소
 - 브라질과 미국의 수출 비중은 2005~07년 47%에서 2017년에는 57%로 확대
 - 같은 기간 EU의 수출 비중은 11%에서 2017년에 6%로 축소되고 캐나다의 수출 비중도 8%에서 2017년에 6%로 축소

- 러시아, 한국, 멕시코 등 신흥경제국 또는 개도국의 수입 증가
 - 러시아의 경우 EU에서의 수입은 줄고, 브라질에서의 수입 증가
 - 일본은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생산 감소로 수입이 5% 증가
 - 한국의 육류 수입량은 2005~07년 584천t에서 2017년에는 두 배인 1.2백만톤으로 증가
 - 멕시코는 인구 증가와 소득 증가로 육류 수요 증가가 생산 증가를 앞지르면서 수입량이 크게 확대

Ⅲ. 바이오 연료

1. 세계 시장 추세와 단기 전망

-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지구온난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전분, 당분, 유지작물 등을 활용한 바이오 연료 생산 증가
 - 2004년 이후 2007년까지 원유가격이 두 배로 상승
- 2007년 에탄올 생산량은 520억 리터로 2000년 이후 3배 증가. 바이오 디젤은 동 기간 동안 10억 리터에서 110억 리터로 급증
 - 주 생산 국가는 에탄올은 미국과 브라질, 바이오 디젤은 EU

2. 에탄올

가. 종합 전망

- 에탄올 생산량은 2017년 1,270억 리터로 2007년의 2배로 증가
- 가격은 원유가격 상승 영향으로 2009년에 100리터당 55달러로 상승한 후 생산이 늘어나면서 100리터당 52달러로 하락
- 교역량은 EU 등의 사용의무화로 2017년 100억 리터로 급증. 대부분 브라질에서 EU, 미국으로 수출

나. 미국

- 2017년 소비량은 575억 리터로 기준년도(2005~07년) 대비 150% 증가

- 휘발유 중 에탄올 비중은 10년간 3.4%에서 6%로 증가
 - 현재 주로 저수준혼합(low-level blends)형태로 소비되고 있으며 고수준혼합(high-level blends; E85) 소비는 7%에 불과
- 2017년 생산량은 524억 리터로 기준년도 대비 140% 증가
 - 옥수수 가격은 상승하는 반면 에탄올 가격 상승은 크지 않아 생산업체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중장기적으로 생산량 축소
 - 생산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계 생산량의 41% 차지
 - 생산이 줄어들면서 2017년 수입량은 소비량의 9%로 증가

다. EU

- 2017년 소비량은 147억 리터로 기준년도 대비 220% 증가
 - 에탄올 소비 증가로 에탄올 생산용 곡물 소비도 2017년까지 24백만톤으로 증가할 것이며 이는 2007년의 4배 이상
 - 원료작물의 81%가 밀이며, 나머지는 잡곡과 사탕무우 활용
 - 소비 확대 정책에도 불구하고 휘발유 중 에탄올 비중 목표치 5.75%보다는 낮은 4.9% 수준에 머물 전망
- 2017년 생산량은 119억 리터로 기준년도 대비 500% 증가
 - 수입량은 2010년까지 30억 리터로 증가한 후 다소 감소

라. 브라질

- 2017년 소비량은 317억 리터로 기준년도 대비 117% 증가
 - 에탄올 가격이 휘발유 가격보다 낮아지면서 소비 급증
 - 2017년 브라질의 차량 절반 이상은 고수준혼합 연료를 사용하는 차량으로 대체될 전망

- 2017년 생산량은 405억 리터로 기준년도 대비 130% 증가
 - 저렴한 사탕수수 생산으로 연간 6% 이상 빠르게 증가
- 국내 소비 증가에도 불구하고 브라질은 세계 1위의 에탄올 수출국이 될 것임
 - 2017년 수출량은 88억 리터로 세계 수출량의 85% 차지

마. 중국

- 2017년 생산량은 102억 리터로 기준년도 대비 82% 증가
 - 곡물가격 상승으로 에탄올 생산 확대 계획을 축소
 - 에탄올은 주로 옥수수로 만들며 사탕수수, 저품질 곡물, 감자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 중
- 2017년 소비량은 108억 리터로 기준년도 대비 116% 증가
- 국내 생산량이 소비량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기준년도 6억 리터 수출했으나 2017년에는 6억 리터를 수입해야 것으로 전망

3. 바이오 디젤

가. 종합 전망

- 2017년 세계 바이오 디젤 생산량은 243억 리터로 기준년도 대비 220% 증가 전망
 - EU에서 의무사용과 세금감면 등으로 에탄올 보다 빠르게 증가
- 세계 바이오 디젤 가격은 화석 디젤의 생산비보다 높은 상태이며 2017년까지 100리터당 104~106달러 수준을 유지

- 주로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에서 EU로 수출될 것임

나. EU

- 2017년 소비량은 148억 리터로 기준년도 대비 170% 증가
 - 소비는 주로 의무혼합비율 설정, 의무사용, 바이오 디젤 소비자에 대한 세금 감면 등 정책적 지원으로 확대
 - 전체 디젤 중 바이오 디젤 비중은 약 5% 정도이며, 세계 바이오 디젤 소비의 60%를 차지
- 2017년 생산량은 133억 리터로 기준년도 대비 160% 증가
 - 생산량보다 수요량이 많아 수입량은 2010년 20억 리터에 달한 후 그 이후 13~16억 리터 수준을 유지

다. 브라질

- 2017년 소비량은 26억 리터로 기준년도 대비 14배 증가
- 2017년 생산량은 25억 리터로 2006년 생산 이후 빠르게 증가
 - 바이오 디젤 가격이 올라가면서 생산업체 수익성도 개선

라. 인도네시아

- 2017년 소비량은 소비량 목표 설정 등으로 22억 리터로 급증
 - 2025년 수송용 디젤 소비량의 20%에 달할 전망
- 2017년 생산량은 30억 리터로 2006년 이후 급격히 증가
 - 2005년 인도네시아 정부는 화석 연료에 대한 가격보조를 폐

- 지하여 바이오 연료 산업이 경제성을 갖도록 함
- 팜유로 바이오 디젤을 생산하면서 세계 2위 생산국으로 부상

마. 말레이시아

- 2017년 생산량은 11억 리터로 기준년도 대비 6배 이상 증가
 - 세계 2위의 팜유 생산국으로 팜유로 바이오 디젤을 생산
- 소비의무가 없어 국내 소비는 크게 증가하지 않을 전망이며 주로 EU로 수출

자료 이용 안내

1. 이 자료의 원문은 OECD 홈페이지(www.agri-outlook.org)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2. 저희 농협경제연구소 홈페이지(www.nheri.re.kr) NHERI경영 정보에 본 자료와 OECD와 FAO의 품목별 연도별 수급, 가격 데이터를 <붙임>으로 올려놓았으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 연구소별 곡물가격 전망 비교

(단위 : 달러/톤)

| 구 분 | | 2002/03 ~2006/07 (A) | 2007/08 (B) | 2017/18 (C) | 상승률 | |
|-----|----------|----------------------------|----------------|----------------|--------------|-------|
| | | | | | C/A | C/B |
| 쌀 | OECD-FAO | 262 | 361 | 335 | 27.9 | △7.2 |
| | FAPRI | | 397 | 450 | 71.8 | 13.4 |
| | KREI | | - | - | - | - |
| 밀 | OECD-FAO | 168 | 319 | 231 | 37.5 | △27.6 |
| | FAPRI | | 314 | 264 | 57.1 | △15.7 |
| | KREI | | 322 | 374 | 122.6 | 16.1 |
| 옥수수 | OECD-FAO | 113 | 181 | 165 | 46.0 | △8.8 |
| | FAPRI | | 198 | 195 | 72.6 | △1.5 |
| | KREI | | 155 | 137 | 21.2 | △11.6 |
| 대두 | OECD-FAO | 293 | 486 | 457 | 56.0 | △6.0 |
| | FAPRI | | 496 | 487 | 66.2 | △1.8 |
| | KREI | | 325 | 328 | 11.9 | 0.9 |

- 주 1) 2002/03~2006/07년 가격은 OECD-FAO에서 조사한 가격
 2) OECD-FAO 전망에서 옥수수는 No.2. Yellow price, FOB USA, Gulf port 기준, 유지작물은 유지종자가격의 가중평균, 소맥은 2등급 HRW 기준
 3) FAPRI(미국식량정책조사연구소) 전망에서 옥수수와 소맥은 FOB USA 기준, 대두는 CIF 로테르담 기준
 4) KREI(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망의 최종년도는 2016/17년
- 자료 1) Agricultural Outlook 2008-2017, OECD-FAO, 2008
 2) 2008 U.S. and World Agricultural Outlook Now Online, FAPRI, 2008
 3) 국제곡물가격 상승 전망과 국내농업 과급영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7